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1일 월요일 음 10월 12일 (4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10%
30%	성산	10%
30%	고산	10%
3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6/15°C
모레 ☁ 대체로 흐림 5/11°C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4°C, 낮 최고기온은 13~19°C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며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해뜰 07:20	달뜰 14:26
해침 17:26	달침 02:41
물때	만조 07:34
	간조 01:20
	19:31 13:47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사설상 폐쇄 경고

대 마야카르텔 작전 확대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영공을 사설상 비행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내리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적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야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의 확대를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영공 폐쇄가 이를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반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표 세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격해 왔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제주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 표 전화 (064) 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5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면로 특별 분양
유라,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본당 10,000원 100% 이식묘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카라향
- 한라봉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천혜향
- 궁천
- 궁진
- 미니향
- 하귤(아마나스) 외
- 다수품종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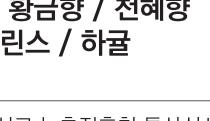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生존률이 높고 싱기 조절가능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 2327-1) 하예동 1831-2번지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더 빠르고 보다 더 안전하게

당초 민선 8기 도정은 올해 10월 BRT를 동광로(2.1km)에도 도입하여 했지만 민원이 잇따라자 개선책을 찾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막을 내린 도정 질문에선 핵심 교통정책이 표류한 원인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나”, “버스 기사들은 매번 위험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놓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BRT 도입 후 대중교통 속도가 빨라졌다며 성과까지 외연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BRT로 이름을 바꿔 달긴 했어도 ‘더 빠르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연히 버스가 느리고 불편한데 대중교통 수송분단률이 상승할리 만무하

고, 자가용 천국 오명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교통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안전이 도외시되면 무익하다.

BRT의 가장 큰 문제는 양문형 버스가 광양사거리에서 제주대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맞닥뜨리는 사고 위험이었다. 중앙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해당 구간에서 우회전하려면 1차로에서 2·3·4차로로 순차적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1차로와 4차로까지 거리가 180m에 불과하다 보니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 버스기사들은 제주도가 정책 보류 선언을 하기 3개월 전 한 토론회에서 “목숨을 걸고 운전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도의원이 “버스 기사들이 매번 위험을 느낀다”고 지적한 것인데, ‘그래도 버스는 빨라지지 않았느냐’고 대응

을 하니 보는 사람의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다.

BRT에서 나타난 문제는 묘하게 최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와 겹쳐 보인다. 제주도가 올해 7월 8년 만에 우도 내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반입을 허용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을 때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삼륜차와 사람들이 뒤섞여 다니는데 차량이 더 들어오면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장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3개월 뒤 대형 사고가 터자 당국은 그제야 렌터카 반입 완화 조치를 재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난다. 이제 교훈은 분명하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수백, 수천억원어치 효과가 있다 한들 사람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열린마당

거리로 아름답게 만드는 힘, 시민에게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을 지키자



표 세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거리에는 날마다 새로운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걸리며 도시의 풍경을 어지럽힌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수막을 제작해 무단으로 내거는 사람이나 있는 만큼, 그 속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소비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고를 불이는 쪽은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손쉽게 정보를 얻는다는 편리함을 헤�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맞물린 구조가 계속되는 한, 단속이나 철거만으로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불법현수막을 ‘싸고 빠른 정보’가 아닌 ‘도시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장된 문구에 마음이 동하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부동산 플랫폼·지자체 공공정보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불법 광고에 관심을 거두면, 광고주는 비용을 들여 현수막을 걸 이유를 잃는다. 부동산 거래나 학원 등록에서 ‘현수막을 보고 연락했다’는 사례가 줄어들면 현수막 제작·부착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도시의 얼굴은 행정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시민 한 사람의 ‘안 보겠다’, ‘안 쓰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모이면, 어지러운 현수막은 스스로 살 자리를 잃는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보행 환경,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공재다.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는 결국 시민 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주택 화재가 증가하면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주택 화재의 상당수는 발견이 늦어 피해가 커지고, 대피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즉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소화기 반드시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큰 소리로 경고해 신속한 대피를 돋고, 소화기는 화재가 확산되거나 전에 1차 진압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모든 가정에서 쉽게 갖출 수 있는 장비들이다.

소방시설은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매년 기초생활수급 가구, 홀몸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며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준비다. 화재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작은 비용으로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장치다. 모든 가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활용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신품종 2026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미래향, 우리향, 사리향, 달고나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 레드향 5년생, 7년생
- 천혜향 3-4년생
- 한라봉 7-8년생
- 미니향 7-8년생
- 유라실생 3년생, 5년생
- 하례조생 5-6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